

2022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교사용]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2022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2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대중매체에 등장한 기고문 등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층위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1> 『자유론』(J. S. Mill) (김비환 2018에서 재인용) 『사회철학』(Feinberg, 1973; Mathias Risse, 2017, ‘세계인권에 관한 철학적 탐구에서 재인용)

<제시문2> 『자본주의의 미래』(김홍식 역, 2020), 『메타버스는 새로운 정치체제』(주간경향, 2021)

<제시문3> 『리바이어던』(T. Hobbes) (조궁호, 강정인 2012에서 재인용)

[문제2]의 <사례>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1]의 두 입장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3]은 [문제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2]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 [문제1] : 40점
- [문제2] : 40점
- [문제3] : 2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1], [문제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문제3]

- ① A 등급: 20점
- ② B 등급: 16점
- ③ C 등급: 12점
- ④ D 등급: 8점
- ⑤ E 등급: 4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 채점지침 】

[문제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을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핵심 주장을 잘 정리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출제된 제시문이 총 세 개이기 때문에 한 입장은 제시문 하나만 요약하면 되지만 다른 입장은 두 개의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요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였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그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제시문의 길이는 늘어났고, 제시문 수는 줄어들어 조금 더 호흡이 긴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으로, <제시문2>, <제시문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1>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은 물론이고 각자의 욕망이나 충동도 각자의 인간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해야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연대의 끈이 더 강해질 것이므로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2>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적대시하는 실리론밸리 자유지상주의자를 비판한다. 특히 최근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를 국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보는 그들의 생각 밑에는 정부의 간섭과 견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완벽히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문3>은 우선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인위적 인격으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다고 본 홉스의 절대주권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강력한 절대주권이 주는 불편함은 지배자가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무질서로 인한 비참과 공포, 약탈과 분열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홉스의 변호가 오늘날에도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 3>은 국가의 간섭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무질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2>에 따르면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메타버스는 기술을 장악한 자본이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인류를 자유롭게 지배하려는 기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져서 공적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기초로 각 입장을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이 둘일 경우에는 둘 사이의 논점 차이와 관계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2>와 <제시문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2>와 <제시문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제시문2>와 <제시문3>을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2] 아래 <사례 1>과 <사례 2>를 토대로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40점)

【 채점지침 】

[문제2]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신의 주장을 자료나 사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문제1]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1>)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2>와 <제시문3>)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사례1>과 <사례2>를 활용하여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해야 한다.

<사례1>에 제시된 <그림1>은 국가 A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 1985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 최상위인 5분위 집단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실질소득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 최상위 집단(5분위)과 최하위 집단(1분위) 간의 격차는 계속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정책이 10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면 그 차이가 극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이 자료를 토대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논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주면 인류가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시문1>의 자유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더해 <그림1>에 나타난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승자독식 등의 현상을 <제시문2>와 연결지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즉, 자율적 개인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실리론밸리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실 기업의 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극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그림1>을 <제시문3>과 연계하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면 결국 약탈과 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국가권력에 절대성을 부여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이 개입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례2>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우위 사회였던 국가 B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사례2>에 따르면 국가 B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규제와 통제보다 중요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공업의 비중이 농업보다 큰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이 사례를 토대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 결국에는 자율적 개인들이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논리에 따라서 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제시문2>를 반박하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국민국가의 권력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사회구현이 가능함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사례2>를 활용하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 주권은 절대성을 지닌다는 <제시문3>의 주장도 직접 반박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제시문1>과 관련지어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 지니는 순기능을 논하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신장되면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문3>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사례1>을 활용하여 <제시문1>에 등장한 자유주의 옹호론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례2>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승자독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마찬가지로, <사례2>를 활용하여 <제시문2>와 <제시문3>에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박하고, <사례1>과 같은 부작용이나 제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문1>과 연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문제2]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을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한다.

【 채점등급 】

- A :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
- B :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 C :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입장을 각각 비판했으나 해당 제시문들을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하여 비판의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 D :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1]의 제시문들을 각 사례와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비판한 불충분한 답안
- E : <사례1>과 <사례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사례1>과 <사례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문제3]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 (20점)

【 채점지침 】

[문제3]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취하고,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1]에 등장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일반 논리와 [문제2]에 제시된 유관 사례 및 자료를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또한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1]의 <제시문1>과 [문제2]의 <사례2>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개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민간 부동산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놔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시문2>, <제시문3>이 지적하듯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경우 투기 등의 혼란이 생기고 <사례1>과 유사하게 부동산을 매개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충동도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되며, 개별성이 발전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충동이 부동산 쪽으로 획일화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개별성과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때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1]의 <제시문2>, <제시문3>과 [문제2]의 <사례1>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을 매개로 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국가주의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그 절대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제시문1>이 강조하는 개별성의 훼손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례2>의 결과와 반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덧붙일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채점등급 】

- A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